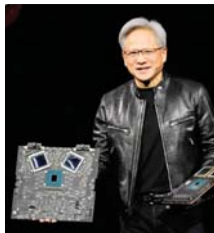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56.17 (-29.67)	891.91 (-2.5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380 (+0.032)	1339.80 (+6.10)

엔비디아  
추론시간 5배 빠른  
차세대 시칩 공개  
02



## “공시가 현실화 폐지... 서울 원도심 대개조 10조 투입”

(10년 간)

### 尹, 스물한번째 민생토론회

영등포 등 ‘뉴:빌리지 사업’ 추진  
노후 단지 다운하우스로 재정비

국민 부담 징벌적 과세 바로잡고  
중소형 10만호 사들여 저렴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살려내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추진해 도시재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다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



###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

방위사업청은 19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5호기(단좌)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진행된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 모습.

방위사업청은 19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5호기(단좌)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진행된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 모습.

/뉴시스

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 공간 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단 영등포의 문제가 아닌 서울 전체의 고민이자,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의 고민하고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며 “정부는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

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주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더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며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

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과적으로 집한 채 가진 보통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재산세 증가 부담, 지역 건강보험료 상승,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대상 제외 등을 언급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신문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오늘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2층

## 기후위기 대응 정부·민간 맞손 452조 쏟아

기업들이 기후위기 관련 규제에 대처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이 오는 2030년까지 452조원을 지원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 투입  
저탄소 개선, 친환경 선박 등  
연평균 60조 녹색자금 공급

신재생에너지 시설 증설위해  
은행, 9조 출자해 펀드 조성

우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과거 5년간 정책금융기관은 연평균 36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67%늘려 60조원을 공급한다. 저탄소 개선시 정책금융기관이 우대보증해 저금리 혜택을 지원하거나 친환경 선박 발주시 여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풍력·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증대될 수 있도록 5대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 규모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금이 18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 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취지다.

/나유리 기자 yul115@

## 4년후 노동력 본격 감소... 2032년까지 89만명 인력 필요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 전환  
고령층 확대로 제약 여건 심화 예상  
사회복지·보건업 등에서 증가 전망

앞으로 4년 뒤부터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하고, 2032년까지 부족한 노동력은 9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 제약 여건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는 이 기간 31만 6000명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까지는 증가하다, 2028년부터는 감소로 전환한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0만9000명 증가하지만, 2027년까지만 증가하고,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양적 축소 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산업으로는 사회복지(75만명), 보건업(24만8000명), 출판업(11만1000명) 등이며, 감소 산업은 소매업(-25만5000명), 도매업(-12만3000명), 사업지원서비스(-8만4000명) 등이 꼽혔다.

직업별로 보면,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돌봄·보건 및 개인서비스직(42.4만명), 보건·사회복지직(29.7만명), 정보통신전문가(12.5만명), 공학전문가(10.4만명)는 취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매장판매직(-24.8만명), 교육전문가(-7.8만명), 운전운송직(-6.1만명), 제조단순직(-5.8만명) 취업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90만명에 육박했다.

고용정보원이 중장기인력수급 전망과 함께 추가 필요인력 규모를 전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자 수 감소 원인이 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고도화 방안 연구’도 병행 추진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돼야 할 필요인력 규모를 처음 전망했다는 설명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될 것”... 서대문·동작 지원 사격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이중섭 출국은 대통령 게이트... 즉각 소환하고 특검 수용해야”

▲ 국힘, 비례 호남 홀대에 광주·전남 총선 동력상실 우려  
▲ 중앙선관위, 4·10총선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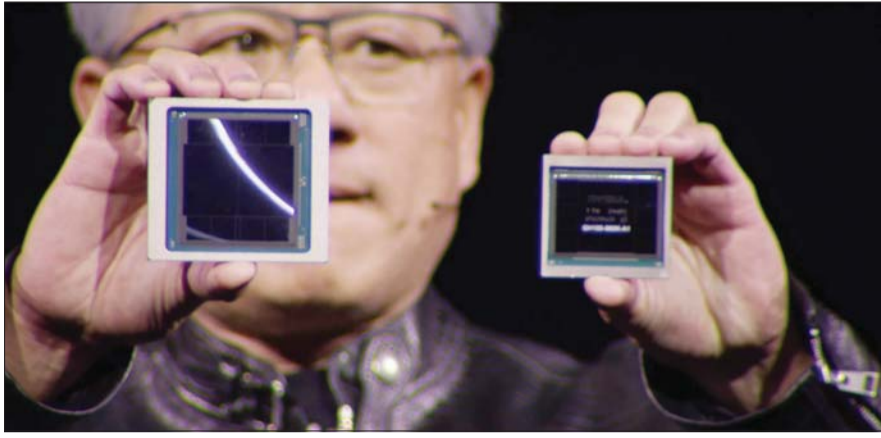
▲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자질 공세에 “알아서 잘 하겠다... 그쪽 일이나” /사진 뉴시스  
▲ 국방부, 내주 군의관 2차 파견 검토... “지원규모 파악 중”

# 추론시간 5배 빠른 시칩 ‘블랙웰’... 비용·에너지는 25배 ↓

**엔비디아, 차세대 AI GPU 공개**  
GTC2024서 S/W 플랫폼 등 발표  
반도체 다이 두개 연결 방식 제작  
트랜지스터 800억개→2080억개  
“블랙웰, 칩 아닌 플랫폼의 이름”

엔비디아(NVIDIA)가 차세대 인공지능(AI) GPU ‘블랙웰(Blackwell·B200)’을 공개했다. 두 개의 GPU를 연결해 하나의 칩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과거 챗GPT 등 AI 모델의 응답 생성에 걸리는 추론 시간이 5배 빨라졌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이전 모델 대비 25배 더 적은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개막한 GTC2024에서 차세대 AI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신제품을 발표했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가 H100(왼쪽)과 신제품 블랙웰을 들어보이고 있다. 크기는 훨씬 작지만 연산 속도와 전력 소모량을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가격미정. /NVIDIA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AI 칩 블랙웰(B200)과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 님(NIM)을 소개했다.

블랙웰은 기존 H100과 달리 4나노급 공정(4NP) 반도체 다이(Die) 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2개 GP

U를 연결해 하나의 칩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800억개였던 트랜지스터가 2080억개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현시점의 기술로 1개 GPU 내에 추가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한정적인 데에 따른 아이디어로 2개 GPU를 연결했음에도 구세대 모델인 호퍼 아키

텍처 방식의 H100보다 작다.

젠슨 황은 “다양한 모델에서 처리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가 등장하면서 AI의 적응성과 성능이 더욱 향상 돼 최근에는 최대 1조개의 매개변수까지 사용된다”며 “이는 곧 컴퓨팅 성능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매개변수를 늘리면 이러한 모델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블랙웰 2개와 CPU 그레이스(Grace)를 한 셋트로 36개가 합쳐져 구성된 가속기 GB200도 소개했다. GB200 NVL72는 초당 1.4엑사플롭스 AI 연산이 가능하며 HBM3e 메모리를 30TB 내장한다. 이전 모델인 H100 36개로 구성된 시스템 대비 LLM 처리 속도는 30배 빠르다. 인텔, 제온, AMD 등 기존 x86 기반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가속기 HGX B200도 향후 출시할 예정이다.

젠슨 황은 “블랙웰은 칩이 아닌 플랫폼의 이름”이라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 님(NIM)을 추가로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대신 AI 모델을 조립하고 명령하며 작업 결과물을 학습시키고 AI가 내놓은 것들을 검토하는 업무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개발 언어를 코딩해 작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지었다.

님(NIM)은 구형 엔비디아 GPU도

최신 AI 소프트웨어 실행 프로세스에 최적화 시킴으로써 AI 모델 훈련에 드는 전력을 줄여준다. 엔비디아 기반 서버를 이용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독 모델로 GPU 당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마누비르 다스 엔비디아 부사장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블랙웰 이후로 실제로 달라질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상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웰은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시장 반응은 다소 시큰둥하다. 기조연설 전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는 한때 주당 920달러를 넘기도 했으나 870달러대까지 떨어진 채 장마감 했다. 최근 엔비디아는 시장의 90%를 장악하고도 초고가를 유지 중인 엔비디아로 인한 AI 개발 경쟁의 불공정과 TSMC의 반도체 생산 차질이 문제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조연설에서 대략의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기존 H100의 가격인 칩당 2만 5000달러~4만 달러를 훌쩍 상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내비치고 있다. 반론으로 일반적인 행사 전후 역겨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물 공개 후 투자자들의 수익화가 이어졌을 뿐, 블랙웰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Aa2**  
Moody's 국제신용등급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 작년 혼인건수 1% ↑... 12년 만에 ‘반등’

**통계청 ‘2023 혼인·이혼 통계’**  
초혼, 남자연상 부부 64%로 압도적

지난해 결혼한 남녀 5쌍 중 1쌍은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은 이른바 ‘연상연하 커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며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전년대비 2000건(1.0%) 증가했다. 지난 2012년 이후 11년째 감소를 거듭하다 12년 만에 처음 반등한 것이다.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연령차이별 초혼 건수는 남자가 연상인 부부가 9만 6000건, 여자가 연상인 부부 2만 9000건, 동갑 부부 2만 4000건이었다. 세 부류 모두 2022년보다 늘어났다.

초혼 부부중 남자연상 부부의 비중은 64.2%로 여전히 압도적이었으나 전년 대비 0.1%포인트(p) 감소했다. 여자나이가 많은 경우는 19.4%에 달했다. 5쌍 가운데 1쌍 가까이가 여자연상이었다. 동갑내기는 16.4%를 차지했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5.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남자 3~5세 연상(24.5%), 동갑(16.4%), 여자 1~2세 연상(13.0%)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尹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규제 완화”

≫ 1면 ‘10조 부어 서울 원도심’서 계속

아울러 “공사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재산세 증가 부담, 지역 건강보험료 상승,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 제외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증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되돌려 놔지만, 일시적인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사 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신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사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전국 공시지가가 1.52% 상승... 세종 6.45% > 서울 3.25% 順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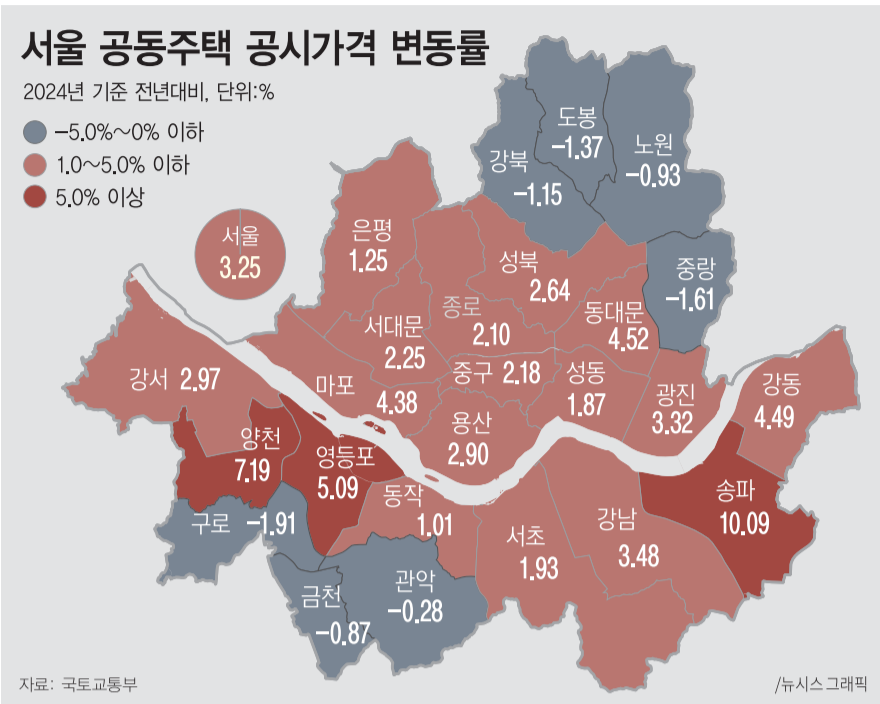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중위 1.68억... 작년비 100만원 ↓ '더펜트하우스 청담' 최고가 기록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오른다.

평균만 놓고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역별로는 다소 차별화됐다. 수도권과 세종 등은 상승한 반면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은 작년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다. 지난 2005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되면서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9.05%, 17.20%로 크게 뛰었지만 작년에는 -18.63%로 가



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이 2020년 수준인 69%를 적용했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이나 하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시세 변

동은 크지 않았다. 세종의 공시가격이 6.45%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서울(3.25%)과 대전 (2.62%), 경기(2.22%), 인천 (1.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는 공시가격이 각각 4.15%, 3.17% 하락했고, 부산(-2.89%)과 전북(-2.64%), 전남(-2.27%)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0.09% 올랐으며, 양천구(7.19%)와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구로구(-1.91%)와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금천구(-0.87%), 관악구(-0.28%) 등은 공시가격이 낮아졌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 6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공동주택별로는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공시가격이 164억원(전용 407.71㎡)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2위는 역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 청담'이 128억6000만원(전용 464.11㎡)이다. 3위와 4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과 '한남더힐'로 각각 106억7000만원(전용 244.72㎡), 98억9200만원(244.75㎡)이다. 서초구에는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64㎡(77억1100만원)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4.8㎡(74억9800만원)이, 강남구에서는 '아이파크' 전용 269.41㎡(71억5100만원)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공동주택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의 다세대주택 '장릉레저타운' 전용면적 17.76㎡로 273만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앞줄 왼쪽부터)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반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뒷줄 왼쪽부터)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예경탁 경남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감원장,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 “금융사고, 온정주의 벗어나야”

영업관행·조직문화 개선 강조 “내부통제 역량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방은행에 잘못된 영업 관행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19일 이 원장은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방금융지주 회장들과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도 참석해 지방은행과 지역 간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구성원과 상생으로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은행들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불거진 금융사고를 교훈삼아 온정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고경영진을 중심으

로 영업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은행 감사역 연수를 통해 우수 검사기법을 전파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방지주와 은행들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은행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방은행의 지역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방은행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지역경제·지방은행 동반성장을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금감원으로 구성된 ‘지역금융발전 협의체(가칭)’를 마련해 지방은행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이제 우리 만날까요?  
함께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화생명이 세계와 만납니다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암보호서비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시작됩니다  
생명의 혁신 오직 한화생명으로부터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글로벌암보호서비스란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화생명의 제휴사 Nee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암 진단 전, 중, 후에 걸쳐 고객님을 앞으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할 때부터 암을 통해 암 예방 관리를 도와주고 암 진단시 담당 주치의에게 암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최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암 치료 후 부작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1588-6363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료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 이후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또는 2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보호서비스는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가입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청약 시 암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제휴업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5310호 (2023-11-14 ~ 2024-11-13) 준법감리인 확인필 CS 23-11-038 www.hanwhalife.com

# 안철수 vs 이광재 與野 중진, '재건축 현안'에 표심 달렸다

## 22대 총선 격전지

### 성남 분당갑

주거·교통·판교 공약에 달린 승패  
與 안철수, 선도지구 지정 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 등 제시  
野 이광재, 재건축 분담금·세금 ↓  
10년 공임 분양전환주택 문제 해결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1~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을 포함한 경기 성남분당갑의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주거와 교통 그리고 판교에 적절한 공약을 내설득하는 후보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갑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전반적인 인프라 전환의 훈풍이 불고 있다. 분당갑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요가 높고 새로운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도로·철도 인프라도 필요하다. 또한 각 후보들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를 더욱 더 발전시킬 방안도 내놓고 있다.

이번 분당갑 선거에선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경기 남부에서 민주당의 힘지로 꼽히는 분당갑에서 '대선 주자급'인 안 후보와 '친노 적자'로 불리는 이 후보의 대진표가 짜여진 것.

두 사람 모두 3선 의원이고 이름값도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뉴스시스

높아 분당갑은 경기도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정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류호정 후보도 출마한다.

### ◆재건축 높은 관심… 도시 품격 높이는 주거 공약

각 후보들은 재건축을 앞둔 분당신도시의 특성에 맞춰 효율적인 재건축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지역에 재건



이광재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뉴스시스

축 선도지구를 다수 지정해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과도한 재건축 분담금을 감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도시의 자족기능과 여가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백현MICE(대형복합시

설)을 안정적으로 조기 추진하고 성남 아트센터와 콘텐츠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후보는 분당갑을 남녀노소의 생활이 윈스톱으로 해결되는 '올인빌(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내가 먹고 자는 곳에서 아이 키우고(보육 교육 시설), 일하고(공유 오피스), 어르신 모시고(경로당), 건강한 삶(스마트건강 관리센터)까지 가능한 마을'로서의 기능이 집약돼 있는 새로운 분당갑을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 공약에 대해서도 분담금 비용과 세금을 인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화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온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의 할부이자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사통팔달' 분당갑 만들겠다

일자리가 많은 서울 강남,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과도 가까운 경기남부의 요충지 분당, 각 후보들은 '사통팔달' 분당갑을 만들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반영하고 도시광역버스망을 추가 확충해 시내버스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구간을 연장하고 3호선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월곶-판교 간선철도의 조기 추진으로 국토의 동서축을 연결하고 GTX(광역급행철도)-A 노선에 성남역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광재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 서판교역, 판교대장역으로 연장하기 위해 노선이 지나는 4개 시와 연석회의를 통해 정치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호선 추가 지선 건설에 도전하고 성남역에 GTX, KTX, SRT가 지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쓰임새가 좋은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을 정상화해 교통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노리겠다고 했다.

### ◆판교를 첨단산업 '밸리'로

판교를 품은 분당갑답게 두 후보는 분당갑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입을 모았다. 벤처기업 경영자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야탑밸리 일원에 시스템반도체 중심 '올인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판교지구를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신규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분교를 판교에 유치하고 카이스트 AI(인공지능) 연구원 등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이광재 후보는 판교를 인공지능 산업의 집약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판교 내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를 주식으로 보상받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정착을 세제지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내외 벤처캐피탈이 참여하는 판교투자밸리를 만들고, 법률·세무·회계 기능을 지원하는 윈스톱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물가 2%대 조기 안착위해 모든 정책 총력” 日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 17년만에 인상

## 대통령실서 제13회 국무회의 주제 3%대 오른 것 농산물 가격 강세 원인 “국민들 장바구니 부담 덜어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과 등 치솟는 농수산물값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의 수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각국은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런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과 각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차 회의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3차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저녁 직접 주재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에 대해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은 계속”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약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대응이 계속돼 온 일본의 금융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크게 전환하게 된다.

지시(時事)통신은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해제를 결정했다”며 “임금과 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호순환'이 강해져 2%의 물가 상승 목표의 지속적·안정적인 실현이 전망됐다고 판단했다”고 금융정책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2016년 1월 도입 결정 이후 대규모 금융 완화 방안의 기둥이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찬성 다수로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금융완화정책의 전환은 기업이나 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행은 0.1%였던 정책 금리를 0~0.1%로 끌어올렸다. 2016년 1월 도입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기둥이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됐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또한 장기 금리를 낮게 억누르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했던 장·단기 금리 조작(일드 커브 컨트롤·YCC), 상장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자신탁(ETF) 등 리스크 자산 매입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완화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풀이했다. NHK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세계에서도 이례적 대응이 계속됐던 일본의 금융정책은 정상화를 향해 큰 전환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물가 2%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섰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에 나섰다. 다만 이번 회의 결정문에는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YCC 정책 등 철폐 후에도 “지금까지와 대략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장기국채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적었다. 최근 월 6조엔(약 53조6000억 원) 정도 매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매입 예정액을 밝히겠다고 했다. /뉴스시스



#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한이 주거비 및 학습공간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도전하는 청년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신청해'



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취업준비청년 1,000명  
(세부기준 신청접수 홈페이지 참고)  
내용 :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용 지원 및 학습공간 이용비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 ~ 24일  
신청접수 : [www.shinchunghae.co.kr](http://www.shinchunghae.co.kr)

# 與野, 공천후보 '막말논란'에 골머리 이대로는 정치 양극화 극복 어려워

野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과거 노 전 대통령 칼럼 논란  
비명계 전해철 의원에 막말도  
與도 논란 후보, 사전에 못 걸러  
도태우·장예찬 무소속 출마 우려

21대 국회가 쟁점 사안들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막말과 고성을 지르며 4년을 보낸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정치 풍토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한때는 여대야소, 한때는 여소야대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양곡관리법, 간호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안이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막말과 고성을 지르며 국민들은 인상을 찌푸렸다.

22대 총선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들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원내의 진입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나온다.

현재 민주당 막판 공천 갈등의 중심의 선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과거 공론장에서 쓴 글이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를 친문재인계와 비이재명계와의 갈등으로 만드려는 모양새다.

양문석 후보의 경우 단어 선택이 자극적이긴 했지만, 우리 사회는 칼럼을 통한 정치 지도자 비판을 용인해왔다. 양 후보도 이를 과거 발언을 사과하고 전날(18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절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양 후보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띄우기 위해 보여왔던 행보가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함은 물론,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경남 통영을 떠나 비이재명계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 도전했다. 양 후보는 전 의원에 대해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후보는 지난해 6월 전해철 의원에 대해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해 '당직 정치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흔히 '비이재명계'를 비하해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지난해 2월 이재명 대표의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극심해졌는데, 이를 더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이다. 결국, 양 후보는 당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전해철 의원과 경선에서 붙어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의 비전과 가치를 보고 모인 것이 대중정당인데, 양 후보는 당내 경쟁자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접에서 다른 후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다. 저를 포함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박, 바퀴벌레, 고름이라 멸칭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면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국민을 '썩'이라 폄하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온 안산갑에 대해 '저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막말 논란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지만, 사전에 이를 걸러 내지 못하고 공당의 후보로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말해왔던 도태우 씨는 대구 중·남구에, 청년 비하 논란 등을 일으킨 장예찬 씨는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된 후보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양 후보의 경우 과거 글로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선거판을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18일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 중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5255t)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 모의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선관위는 오는 19~23일 선상투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뉴스시스

## 조국혁신당, 지지율 20% 상회 국민의미래 대항마로 '주목'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더불어민주당 및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정당들이 비례대표 순번 추천을 거의 완료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이번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얻는 것은 국민의미래로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도 '돌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19일 현재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연합,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발표했다. 국민의미래는 35번(예비 10번), 더불어민주당연합은 30번, 새로운미래는 13번, 녹색정의당은 14번, 조국혁신당은 20번(예비 남·녀 각 3번)까지 후보가 있다. 개혁신당의 경우 조만간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조국혁신당의 비례의석 확보 규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도 공천했지만, 조국혁신당은 21대 총선 열린민주당과 같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와 참여연대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산기'를 통해 각 정당의 비례 득표를 예측해 봤다. 인용된 조사 자료는 지난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다. 계산에 있어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는 1석으로 가정했다. 계산에 들어간 정당은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온 곳만을 기준으로 했다.

우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진행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31.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다음은 조국혁신당이 26.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8.0%, 개혁신당은 4.9%, 자유통합당은 4.2%, 새로운미래 4.0%, 녹색정의당은 2.7%였다. 기타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1%로, 무당층은 6.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통해 의석수를 계산해본 결과, 국민의미래는 16번

까지 당선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9번, 개혁신당은 3번, 새로운미래는 2번까지 당선권으로 나온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14번까지 당선권이다. 비례 2번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넉넉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리고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통합당도 2석을 얻는 것으로 나왔다. 녹색정의당은 0석으로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미래가 34%, 더불어민주당연합 24%, 조국혁신당이 19%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 자유통합당 1%였다.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계산했을 때는 국민의미래는 비례 19석,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4석을 얻는다. 조국혁신당은 11번이 당선권인 것으로 계산됐다. 개혁신당은 2석을 얻지만, 나머지 언급된 정당은 3%에 미치지 못하므로 0석이었다.

두 가지 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미래는 16~19석, 더불어민주당연합은 9~14석, 조국혁신당은 11~14석, 개혁신당은 2~3석, 새로운미래와 자유통합당은 0~2석으로 전망된다. 녹색정의당은 두 조사 모두 3% 이하로 나왔으므로 0석으로 계산됐다.

일단, 국민의미래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다수가 국민의미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비례정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여론조사 상 수치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나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당 간 비례대표 의석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셈이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의석수를 합치면 국민의미래보다 많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또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점도 변수에 속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외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가는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고를 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국혁신당의 부상은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 야당 관계자 역시 "유의미한 3지대 표는 조국혁신당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국혁신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범야권의 선거에 단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이번엔 비례대표 공방...尹-韓 갈등, 당 전체로 확산?

이종섭·황상무 논란서 입장 엇갈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발표 후  
친윤계 이철규 SNS서 불만 드러내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회갑 발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거취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당내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친윤계(친윤석열계)에서 비판이 제기돼 여권 내 '집안싸움' 조짐도 보인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입장이 엇갈린 것을 두고 "기존 입장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의 즉각 귀국, 황상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이용호 서대문갑 후보, 박진 서대문을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수석의 자진사퇴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황상무 수석 사퇴는 선을 긋고 있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이 당의 압박에도 뜻을 바꾸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한 갈등 시즌 2'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경

울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촉발된 1차 갈등이 봉합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한 번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윤한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미래(비례정당)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친한계(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있었다는 풍문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이 발표되자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당헌·당규에는 당선권의 3분의 1 이상을 (호남 출신에) 배치하게끔 돼 있다"며 "(비례대표 순번을) 당 사무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좌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순번) 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 농촌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태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 주주환원 늘리고 新 동력 확보 사명 변경 등 이미지 변신까지

## 주요 건설사 주총 돌입

삼성물산, 배당 확대안은 부결  
2026년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

DL이앤씨, 순익 25% 주주 환원  
실적악화로 배당금은 500원 ↓

GS건설, 허윤홍 사장 사내이사로  
배당절차 선진화 위해 정관 변경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했다.

건설사 역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소각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함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신사업 등으로 수익을 다변화하기 위해 아예 사명까지 바꿔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겠다는 곳도 나왔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이 지난 15일 주총을 마무리했고, 현대건설(21일)과 DL이앤씨(21일), 대우건설(28일), GS건설(29일), HDC현대산업개발(28일) 등이 주총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 주총에서는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들이 제안한 배당 확대안은 부결됐다. 행동주의 펀드는 보통주 주당 4500원, 우선주 주당 4550원 배당안과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다.

삼성물산 측은 “주주제안상의 총 주주환원 규모는 1조2364억원으로 2023년 뿐만 아니라 2024년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당사의 잉여현금흐름의 100%를 초과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배당은 당초 회사 측이 제안한 보통주 주당 2550원, 우선주 주당 2600원으로 통과됐고, 자기주식은 보통주 총 781만주와 우선주 전량인 16만주 등 시가로 약 1조원 이상 규모를 소각키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주총에 앞서 오는 2026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을 내놨다. 올해부터 연결 순이익의 25%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며, 현금배당과 자사주 취득으로 각각 10%, 15% 수준을 제시했다.

다만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도 작년 실적 악화로 인해 주당 배당금은 보

통주 기준 500원으로 전년 1000원 대비 낮아졌다. DL이앤씨는 이번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도 도입한다.

GS건설은 이번 주총에서 허윤홍 사장을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허 사장은 허창수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달 주식을 증여받아 지분을 3.89%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GS건설 이사회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약적인 발전 및 기업가치 제고를 이뤄냈다”며 “장기근무의 근무를 통해 회사내 내부사정에 정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이해도와 전문성이 높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해 정관을 변경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금배당을 주당 700원으로 전년 600원 대비 늘려 주총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사명 변경도 추진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이앤에이(E&A)로 상호변경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SGC이테크건설도 이번 주총에서 사명을 SGC이앤씨로 바꾼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한화손보 女특화보험 출시 등 나채범 號 차별화 브랜딩 결실

차별화와 업무협약 시너지 효과  
여성 특화·서비스 강화 상품 통해  
나소나이 측정 검사도 최초 선배



한화손보가 여성을 위한 보험사라는 브랜딩에 나설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나채범 대표이사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취임

1년째를 맞는 나 대표는 한화손보를 여성 특화 보험사로 변모시킨 1등 공신으로 꼽힌다.

나 대표는 지난해 3월 한화손보 대표이사로 선임돼 여성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6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여성 연구와 여성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여성 중심 사업의 싹크랭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LIFEPLUS 펠테크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장으로는 맥킨지 마케팅 담당, 현대카드 브랜드 총괄 등을 역임한 한정선 전 VISA 마케팅 총괄을 선임했다. 펠테크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이화의료원과 펠테크 협력을 모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여성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판매 8개월만에 신계약 매출 기준 1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월엔 월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장에서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2월까지 신계약 건수는 12만5600건을 기록했다.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20·30 연령대 여성 고객의 가입 성장률은 약 73.6%를 나타내는 등 대표적인 여성 특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나채범 대표이사 취임 후 여성 전문 보험사로 여성을 잘 아는 보험사를 모토로 브랜딩하고 있다”며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지속가능 성장 위해 경영·상품·채널·신사업 4대전략 수립”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간담회  
소비자 상생·동행 노력 한층 강화

“생명보험업계는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가 존립기반임을 굳게 명심하고 소비자들과의 상생, 동행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2024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영, 상품, 채널, 신사업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세부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생보업계, 금융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는 ‘경영전략’으로 보험규제 혁신과 생보업권에 적용되는 예보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많은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생보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자회사 및 부수업무 관련 등 남아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협회장이 19일 ‘2024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있는 규제개선과 생보업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분야’에서는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 역할 강화와 제3보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적연금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금융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생보업계 입지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제3보험시장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업권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업권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채널전략’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합리적인 모집수수료 체계도 마련한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신사업’ 진출도 확대하고, 생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버산업 진출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초고령화,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헬스케어·요양·실버주택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했다.

김 협회장은 “보업계는 시장포화 성장에 정체를 가둔 채 저출산, 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엄중한 거시환경 변화에 직면했다”며 “협회는 생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성장 전략을 검토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 기업은행 최고 연5%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일시납 가입자 대상 1인 1계좌 가능

IBK기업은행은 IBK청년도약계좌 일시납 가입자를 위한 신상품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와 일시납 서비스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약 1300만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50만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 최고금리는 연 5.0%(세전)로 기본금리 연 4.0%p에 IBK청년도약계좌를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 만기 시점까지 유지하면 연 1.0%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KB금융 ‘천원의 아침밥’ 사업 본격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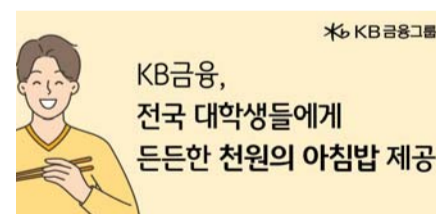
전국 주요 대학교에 10억 지원

KB금융그룹은 전국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KB금융은 경기, 강원, 경북·경남, 충청, 호남 등 전국 각 지역 주요 대학교에 총 10억원을 지원해 총 100만명분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두번째 프로그램이다. ‘천원의 아침밥’ 결실을 59%에 이르는 청년층들이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전국 지자체·대학교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진행중인 사업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을 통해 청년들 양질의 아침밥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쌀 소비 문화가 확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본다”며 “고물가 시대에 부담도 덜고 든든



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첫번째 프로그램인 ‘KB 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B금융은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생금융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더불어 KB금융은 청년층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고려아연-영풍, 주주총회 표대결

# 현금배당안 가결·정관변경안 부결... 최윤범 회장 '판정승'

(고려아연)

‘최·장’ 일가 경영권 공방 이목집중  
국민연금, 고려아연측 제시안 지지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의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75년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표대결에서 고려아연이 승리를 거뒀다. 특히 고려아연 주주총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에 손을 들어주면서 미래 신사업과 중장기 기업 가치 향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9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에서 개최된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현장은 일반 주주와 대리인, 의결권 위임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총을 앞두고 이른 시간임에도 참석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주총장 입구에는 경비 인력이 방문 목적을 물으며 철저한 검색을 진행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배당 규모와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지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은 만나지 못했다.

이날 고려아연 주총이 관심을 끈 것은 경영권을 놓고 고려아연 최씨 집안과 영풍 장씨 집안이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두 집안은 1949년부터 동업을 해오며 상호 지분을 보유해 왔지만 고려아연 최 회

장이 2022년 한화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현재 고려아연 최 회장 일가와 영풍 장 고문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각각 33%, 32%다.

우호세력을 포함해도 양쪽의 지분이 팽팽하다보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약 8%)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총회의 핵심 쟁점은 배당과 정관변경 두가지였다.

우선 주총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배당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 62.74%가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 주당 5000원을 결산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최대주주인 영풍은 배당금이 너무 적다며 주당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해왔다. 고려아연은 회사 이익이 줄어든 만큼 배당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배당금을 높일 경우 주주환원율이 76%를 넘는 상황에서 96%까지 올라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표준정관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측 제시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53.02%를 기록했다. 하지만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주주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정관변경안은 지분 32%를 보유한 영풍 측이 반대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 집안과 장 고문 집안 간의 표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은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됐다. 이로써 최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ESG경영 전력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을 달성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잘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흐름에도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을 고민했고,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수소 에너지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2차전지 소재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친환경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비전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친 저성장 기조와 전기료, 원료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기존 제련사업과 신사업 간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 주총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영풍의 주주총회도 열린다. 지난해 연결기준 17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가 이어진만큼 영풍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주환원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등 부실한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주총과 관련해 주주 환원과 주주 권의 훼손 등을 놓고 영풍과 장씨 일가, 고려아연과 최 씨 일가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만큼 영풍 주주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4조원에 육박하는 잉여금에도 불구하고 1700억원대에 불과한 영풍의 배당금 규모를 놓고 주주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고려아연 주총에서 주주채지 증대를 기치로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해온 영풍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모습 /고려아연

## SK하이닉스,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양산

세계 최초

초당 최대 1.18TB 데이터 처리  
이달말부터 엔비디아에 제품 공급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BM3E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대규모 양산과 제품 공급을 시작한다. 고객사는 엔비디아다.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신제품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3월 말부터 제품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해 8월 HBM3E 개발을 알린 지 7개월 만에 이룬 성과”라며 “HBM3E에 이어 현존 D램 최고 성능이 구현된 HBM3E 역시 가장 먼저 고객에 공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

야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AI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다중 연결하는 식으로 반도체 패키지가 구성돼야 한다.

SK하이닉스는 HBM3E가 속도와 발열 제어 등 AI 메모리에 요구되는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초당 최대 1.18TB(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이

는 FHD(Full-HD)급 영화(5GB) 230편 분량이 넘는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또 AI 메모리는 극도로 빠른 속도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효과적인 발열 제어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신제품에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을 적용, 열 방출 성능을 이전 세대 대비 10% 향상시켰다.

류성수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당사는 세계 최초 HBM3E 양산을 통해 AI 메모리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성공적인 HBM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고객관계를 탄탄히 하면서 ‘토탈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기아, PBV 비즈니스 분야 등 신입사원 채용

(목적기반 모빌리티)

29일 온라인 채용 설명회 개최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인재 확보에 나선다.

19일 기아에 따르면 4월 1일까지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글로벌사업관리 ▲구매 ▲경영지원 ▲경영지원(AutoLand화성) ▲상품 ▲생산(AutoLand화성, AutoLand광주) ▲정책개발 ▲제조솔루션(생산기술) ▲커뮤니케이션센터 ▲특수사업 ▲품질 ▲PBV비즈니스 등 총 12개 부문에서 19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4년제 정규대학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 최종 합격 발표 및 입사는 6월 중 예정이며 ESG경영 실천 차원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은 우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기아는 오는 29일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8일부터 25일까지 참가신청 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는다.

또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개 대학 교를 찾아가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현대차그룹 전기차, 13개국 48개 부문 수상

E-GMP 모델 각광... 우수성 입증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E-GMP를 적용한 전기차의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 비야디(BYD), 현대차그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미국과 유

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6개월간 진행된 전 세계 자동차 시상식에서 전기차 모델이 13개국 48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 E-GMP가 적용된 전용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E-GMP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출시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전기차에 최적화된 차체 구조와 샤시, 고속화 모터, 고밀도 배터리셀 등을 적용해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의 상품성을 완성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가 권위있는 다수의 시상식에서 연일 수상 소식을 전하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는 전동화 모델로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12일만에 누적 판매 3000대 돌파

삼성전자의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이후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제품 생산라인 풀가동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3일 만에 판매량 1000대, 12일 만에 누적 3000대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국내 비스포크 AI 콤보 생산라인을 풀가동해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순조로운 배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 후 건조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직원들이 비스포크 AI 콤보를 제조하는 모습.

위해 세탁물을 옮길 필요 없이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가능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AI 성장에 전력 인프라 '주목'... K-변압기, 수주 호황 기대

AI 시장규모 연평균 36.6% 성장  
전력 소비·변압기 수요 증가 이어져  
HD현대일렉, 美 공장에 180억 투자  
효성중공업, 창원 국가산단 공장 증설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전력 인프라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변압기의 수요가 늘어나 국내 전력기기 업체는 호재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연평균 36.6%씩 성장해 2030년 18조4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I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24년에 684억6000만달러로 추정되며 2029년에는 1712억1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전력이 소요되는 데이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력기기 업체는 수주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확대는 전력 소비 증가와 더불어 변압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정, 공장 등에 송전되기 이전에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전력기다.

관세청에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변압기 수출액(용량 1만 kVA 초과 기준)은 약 6871만달러(한화 약 9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59만달러보다 33.1% 증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2월 보쉬 커넥티드 월드 콘퍼런스에서 "(AI 발전에서) 1년 전에는 신경망 칩의 부족이 문제였다면 다음에는 변압기 부족이 예측된다"고 언급한 바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변압기.

/HD현대일렉트릭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라며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며, 기존 전력기 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변압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실제 기업들의 수주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연이은 전력기기 수주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15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LS일렉트릭은 3249억원, 효성중공업은 257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각각 전년 대비 73.3%, 90% 늘었다.

업계는 생산능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증설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과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변압기 공장에

각각 272억원, 18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약 20% 확대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 또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에 위치한 생산거점에 전력기기 관련 사업장을 증설하는 등 공장 증설에 나섰다.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변압기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노후화된 변압기가 많고 변압기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현지 배전변압기의 70%가 평균 설치 수명인 25년을 초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AI 관련 수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라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AI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계 수주 호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한화오션, 무재해 작업장 구축 본격화

'국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중장기 전략 통해 관리수준 향상

한화오션이 무재해 작업장 구축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세계 최고 품질 및 안전 전문 기관인 노르웨이 DNV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화오션의 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전략을 통해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화오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약 3개월간 진행한다. 한화오션은 이번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수치화해 회사의 객관적인 안전보건 현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화오션은 DNV와 향후 5년간 안전보건 시스템을 혁신

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최종적으로 DNV로부터 국내 제조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안전경영시스템 정량적 평가(I SRS) 등급 획득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ISRS는 국내 100여개 사업장, 전 세계적으로 약 1만2000여개의 사업장이 평가받았다. 국내 업체 중에는 한화토탈이 8등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 등급은 10등급이다. 한화오션이 ISRS 등급 평가를 받게 될 경우 국내 조선업체로서는 최초가 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ISRS 평가를 통해 이를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KT, 사운드바 등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수상

레드닷 디자인·IF 디자인 어워드  
AI 음성인식 기능·사운드 시각화

KT가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시상식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또 일본 굿 디자인과 유러피안 프로덕트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도 상을 받았다.

앞서 지니TV 올인원 사운드바는 TV 주변에 어지럽게 놓여있던 무선공유기와 셋톱박스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이다. 산업디자인의 거장 스테파노 지

오반노니와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소리의 모양'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제품은 사운드바 형상으로 제작돼 인공지능(AI)음성인식 기능과 우수한 사운드 품질을 시각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유무선 공유기인 'KT 와이파이 6D'는 기존의 통신사 유무선 공유기의 기계적인 형태와 거추장스러운 외관을 개선했다. 안테나를 내장해 어떤 공간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식당 주문용 태블릿인 하이오터2는 전선 외부 노출과 청소·관리의 어려움을 디자인 개선으로 해결하고 결제시스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설치 편의성까지 담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용 '그루트'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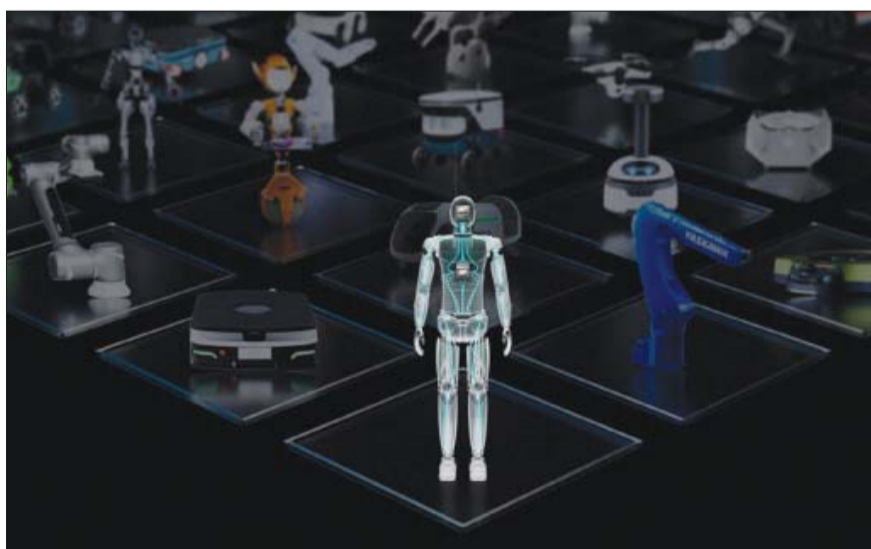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신제품 공개  
인간 자연어·움직임 모방 등 설계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기반 모델 프로젝트 그루트(Project GR00T)를 공개하고 로봇 공학의 획기적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한 GTC2024 기조연설에서 프로젝트 그루트를 비롯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젠슨 토르(Jetson Thor)와 엔비디아 아이작(NVIDIA Isaac™) 로봇 플랫폼 등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신제품을 공개했다.

젠슨 황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초 모델은 인공지능(AI) 영역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개발 분야"라며 "전 세계 로봇 공학자들이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그루트(GR00T)는 Generalist Robot 00 Technology의 약자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 자연어를 이해하고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를 목표로 한다. 그루트



엔비디아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컴퓨터의 작동 방식 예제.

/NVIDIA

는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모델을 뜻하는데, 젠슨 황에 따르면 플랫폼 그루트로 구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대화 중 몸짓은 물론 다양한 기술적 움직임까지 인간 본연의 행동을 빠르게 학습해 상호작용 한다.

함께 공개한 젠슨 토르(Jetson Thor)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온칩(System-on-a-chip·SoC)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컴퓨터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사람과 기계 간 안전하고 자

연스러운 상호 소통에 중점을 뒀다.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트랜스포머 엔진은 GR00T와 같은 멀티모달 생성형 AI 실행을 위해 800테라플롭의 8비트 AI 성능을 제공한다.

아이작 또한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시뮬레이션 및 AI 워크플로우 인프라를 위한 도구를 대폭 업그레이드해 공개했다. 아이작은 다중 카메라와 3D 서라운드 비전 기능을 추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글로벌 협력 기반 '스트림4IR 산업단지' 조성

CJ올리브네트웍스-원주시  
광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지난 15일 원주시와 글로벌 협력 기반 '스트림 4IR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원주시는 광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기반의 '글로벌 거점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광산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하드웨어를 융합해 무인화 채굴을 통한 자원 확보가 주요 목표이며 여기에 따라 오는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R&D), 교육, 해외 수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원주시는 스트림 4IR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원주시의 성공적인 스트림 4IR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한 ICT 인프라 및 교육 서비스 ▲피지컬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한 ICT 인프라 및 관제·운영 서비스 ▲디바이스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한 ICT 인프라 및 솔루션 개발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능형사물인터넷(AIoT) 디바이스·솔루션 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디바이스 이노베이션 센터' 등 총 3곳의 이노베이션 센터에 이음5G 특화망과 관련 ICT 인프라를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최: metro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b>김명규</b>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b>윤건수</b>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b>이장규</b>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b>Robert Coppes</b> Prof 강연2: <b>Ryuichi Okamoto</b> Prof 강연3: <b>유종만</b> 오가노이드사이언스대표 강연4: <b>손미영</b>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b>임승원</b>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 상장폐지 지정종목 2배 늘어… “신중투자 필요”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 앞뒤 관련 공시 제출 상장사 27곳 집계 카나리아바이오 등 11개사 거래정지 나머지 종목들도 지정 가능성 높아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코스닥 상장사 중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은 주가 급락은 물론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총 27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곳)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공시는 자체 결산에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우려가 제기됐음을 뜻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동안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발생했거나 최근 4개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전액잠식 등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공시된 18개사 중 카나리아바이오, 셀리버리, 파멧신 등 11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이미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종속회사 카나리아바이오(구 엠에이치씨앤씨)의 바이오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반영돼 전액 자본 잠식을 기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전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

지됐다. 이후 셀리버리 측의 이의신청서 접수로 오는 4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지난 11일 사업연도 말 자본전액잠식(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 미만 포함) 공시를 해도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도 새롭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공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

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세종메디칼은 지난달 29일 내부결산시점관리종목지정·형식적상장폐지·상장적격성실질심사사유발생 공시 이후 첫 거래일에 22% 넘게 주가가 하락했다. 세종메디칼은 최근 3개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 디딤이앤에프도 지난 13일 공시 이후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 이 같은 종목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인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이번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회사의 재무 상태, 앞으로의 영업 전망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투자자가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재무 상태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대상에서 걸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KB자산운용

KBSTAR 커버드콜 ETF  
9영업일 만에 100만주 돌파

KB자산운용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가 출시된 지 9영업일 만에 개인 누적순매수 100만주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콜 상품으로는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뛰어난 배당 매력과 더불어 해외 월배당 상품 대비 절세 혜택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 개인투자자들이 앞다퉈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상장한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상장지수펀드(ETF)다. ETF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200 위클리커버드콜 ATM 지수'를 추종한다. 이에 거래소로부터 지수의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지수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특히 지수 산출 후 단 한 번도 1%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신하은 기자 godhe@

# 상장협 자문위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경영판단 존중”

자기주식 처분·소각 시  
'경영상 목적' 범위 내 운용  
투자자 가치제고 노력 주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협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다.

상장협 자문위는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소각 및 임원선임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회사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자기주식 처분·소

각에 관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사회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자기주식 처분·소각 시 '경영상 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회사안에 찬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한 소각을 제안한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근거로 반대했다.

우선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므로 이사회의 경영 판단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3년간 기보유 자기주식의

50%(보통주 262만4417주) 소각, 잔여 50% 물량은 보유해 중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처분 또는 소각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사가 속한 석유산업의 특성상 이익 변동성이 커 향후 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배당성향을 유지하더라도 주당배당금이 감소할 수 있고, 이때 잔여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총 주주환원 수준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다 유연한 재무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장협 자문위는 회사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경우 회사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주제안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 모두 독립성·전문성·윤리성·업무충실성에서 반대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으나, 전체적인 이사회의 구성과 경력 면에서 최도성 후보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상장협 자문위 측은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균형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도록 이사진을 구성하고, 회사가 공개한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키는 등 투자자를 위한 가치제고 노력도 함께 주문하며 나머지 안건에는 찬성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자산운용

## 한투운용

美빅테크, 청년층 최선호 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최선호 투자 키워드는 '미국 빅테크'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년층의 투자 선호도는 지난 달 28일부터 진행 중인 ACE 상장지수펀드(ETF) 매수인증 이벤트 데이터를 활용해 집계됐다. ACE ETF 매수인증 이벤트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긴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ACE ETF 10주 이상 매수인증 시 추첨을 통해 1104명에게 맥북 프로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중간 집계 결과(14일 기준) 청년층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44.53%)로 나타났다. 매수 인원 또한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가 전체의 19.16%로 가장 많았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는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편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10개 종목 중 매그니피센트7(M7)으로 불리는 빅테크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 외에도 청년층 상당수는 미국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 서학개미, 올해 美 주식 순매수 4배 급증

(전년비)

## 해외주식 Click

에탁원, 순매수액 30억달러 집계 엔비디아, 테슬라 등에 쏠림현상

올해 들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이 전년 대비 약 4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엔비디아와 광풍 조짐이 보이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30억743만6249달러(3조9999억9999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기간 순매수 금액인 7억6294만14달러(1조147억9999만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종목들의 상승세가 주목되자 서학개미들의 관심도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려되는 지점은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났지만 투자 종목 자체는 확대되기보다는 특정종목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 투자자 해외증권 투자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 전체 해외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2020년 말 39%에서 지난해 말 48%로 9%포인트 급증했다. 10개 종목은 서학개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을 비롯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에 집중돼 있다.

한국은행 측은 “공포지수인 VIX(변동성 지수)가 상승할 때도 개인투자자

는 오히려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하는 등 리스크관리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개인 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가 일시에 확대될 경우 외환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3월 12일~18일)에도 엔비디아(1억8555만달러)를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에 올리면서 선호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역시 엔비디아(7억6535만달러)로, 그 다음은 테슬라(7억3629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4억3203만달러)가 차지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집중된 모습이다. 개별 종목 이외에도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엔비디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6718만달러(899억원) 사들였다. 이외에도 지난주에 애플을 3748만달러(501억원) 순매수하면서 순위권에 안착시켰다. 비트코인의 강세에 따라 관

련주 매수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 미국의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으로 꼽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8350만달러(1118억원) 순매수했다. 더불어 비트코인 선물지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인 '2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4211만달러)도 순매수 6위에 올랐다.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이달에만 46.92% 올랐다. 다만 15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8일에는 전장보다 15.69%나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다.

이외에도 지난주에 서학개미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변동 폭의 3배를 추종하는 '다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2억637만달러)를 대거 사들였으며, 타이완 반도체 매뉴팩처링 ADR(7196만달러),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2708만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신하은 기자

# 창업자, 대기업과 소통 편해진다 '스타트업 파크' 1개소 추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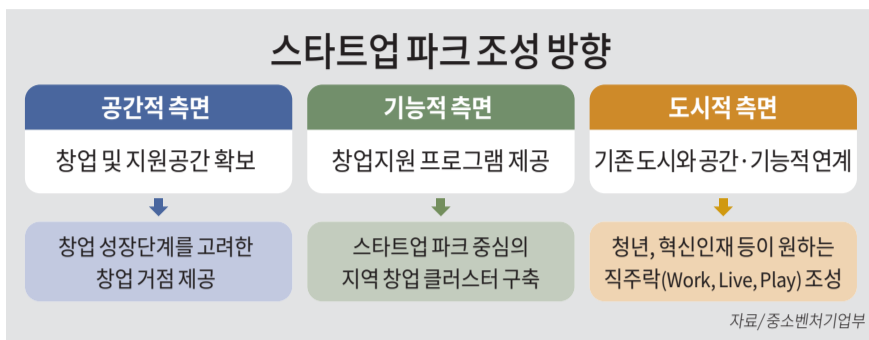
중기부, 지자체 신성장동력 공간 '지역창업생태계 기반' 정책 확대 평가 거쳐 5월 중 선정 지자체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로, 지난 2019년 이후 총 4개의 스타트업 파크를 열고 현재 조성을 하고 있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도심형과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또한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 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 지자체에 대해선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일대일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에 김동섭·김재중 대표 (효동기계공업) (라피치)

중기중앙회·중기부, 1분기 2명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김동섭 효동기계공업 대표와 김재중 라피치 대표를 19일 선정했다.

효동기계공업은 금속성형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김동섭 대표는 1983년 설립 후 기술개발에 매진해 효동기계공업을 기계산업계의 기술 발전을 선도해나가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다.

효동기계공업은 연구개발의 결과로 2018년 세계 최초로 2200t 초대형 단조 기계인 포머 개발, 2019년 국내 최초 열간포머 개발에 이어 최근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을 위한 링크포머 개발을 포함해 국내특허 26건, 해외특허 2건을 취득했다.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2019년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22년 연간 수출액 403억원을 달성했다.



김동섭 효동기계공업 대표 김재중 라피치 대표

라피치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음성인식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김재중 대표는 20년 이상 음성인식 분야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AI 가상 개인비서 서비스와 음성인증 AI 서비스를 주요 통신사·금융권 콜센터에 공급하고 있다. 라피치는 2021년 매출액 68억원에서 2023년 17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KT, SKT, AVAYA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기술 교류와 고도화를 기반으로 해외 AI 시장의 진출도 준비 중에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협, 日 신경제연맹과 맞손 벤처협회는 일본 신경제연맹과 국내 벤처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과 현지 기업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측은 국내 벤처기업의 원활한 일본 진출을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화 도모 등을 추진한다. (왼쪽 4번째부터)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과 일본 신경제연맹 호리 케이이치(Keiichi Hori) 사무국 차장 등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 KCC, 산업 부산물로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

18개월 연구, 100% 재활용 원료 활용 깨끗한 나라 물티슈 뚜껑 제조·판매

KCC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부산물을 가공해 순환자원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CC는 유리장섬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만든 분말(EcoSnow)과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석밥 용기를 활용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하는 유리장섬유를 생산하는 KCC 세종공장 개발팀은 상품 제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가운데 18개월의 연구 기간 끝에 부산물 정제를 통해 에코노우(EcoSnow)라고 이름 붙인 가공분말과 즉석밥 용기(PP)를 배합했을 때 결정 속도가 빨라져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성형 후 일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신소재를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ECOmpound)는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번 신소재는 먼저 깨끗한 나라 생분해 물티슈 뚜껑(캡)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플라스틱 상품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물티슈 뚜껑은 재활용 플라스틱과 새 플라스틱을 절반씩 섞어 제조했으나, 이번 KCC의 신소재를 통해 100% 재활용 원료로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규 플라스틱 저감 ▲즉석밥 용기 재활용을 통한 생활 폐기물 감소 ▲제품 생산 부산물 저감 및 폐기 비용 축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소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합성수지 재질(PP) 성적서를 발급받으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향후 재활용까지 가능하게 됐다.

KCC 세종공장 한상훈 개발팀장은 "18개월이라는 개발 기간을 통해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신소재를 개발하고 특허 출원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는 물티슈캡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대체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세종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침대는 왜 과학일까?' 후속영상 공개

에이스침대, 4가지 시험 소개 배우 박보검 출연·내레이션

에이스침대가 신규 디지털 콘텐츠 '침대는 왜 과학일까?' 후속 영상 4편을 공개했다.

19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 매트리스 성능 테스트 현장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침대는 왜 과학일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달 15일 1차 영상 4편 선공개 후 반응이 좋았던 달여만에 후속 영상을 선보였다.

이번 2차 영상은 에너지소비량 테스트, 바디라인 유지 테스트, 매트리스 쏠림 테스트, 가장자리 지지력 테스트 등 총 4가지 시험을 소개한다.

탄력성, 사용감, 내구성, 가용면적 등 에이스침대 매트리스만의 차별화된 성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1차 영상과 마찬가지로 제품별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연구원으로 변신한 배우 박보검의 모습과 내레이션도 만날 수 있다.

에너지소비량 테스트는 피시험자의 목과 허리 4곳에 근전도 측정기를 부착한 후 전기 신호를 통해 스프링 종류에 따라 수면 중 뒤척일 때 발생하는 근육 사용량을 체크했다.

그 결과 뒤척일 때 근육 사용량이 많은 메모리폼과 독립형 스프링에 비해 하이브리드 Z스프링은 뛰어난 탄성과 반발력으로 수면 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라인 유지 테스트는 피시험자의 인체 곡선이 침대에 누웠을 때 서 있을 때처럼 잘 유지되는지 알아보는 시험이다.

하중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바디라인이 유지되지 않는 메모리폼이나 독립형 스프링과 달리, 하이브리드 Z스프링은 인체곡선에 따라 위에서 맞춰주고 아래에서는 받쳐줘 몸에 부착한 광섬유 케이블이 거의 일직선으로 유지된다는데 에이스침대측의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비렉스 안마베드 홈 체험 서비스

브랜드 론칭... 10일 체험비 10만원

코웨이가 슬림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 안마베드·척추베드 론칭을 기념해 홈 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코웨이에 따르면 홈 체험 서비스는 비렉스 안마베드와 척추베드를 구매 부담없이 최소 비용으로 10일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체험비는 10만원이며, 체험 전용 제품을 제공한다.

코웨이는 지난 달까지 진행된 홈 체험 이벤트가 큰 반응을 얻자 더 많은 고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서비스로 전환했다.

비렉스 안마베드·척추베드는 침상형 안마기기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척추 라인을 밀착 케어하는 6가지 기본 코스를 포함해 총 최대 30가지 안마 프로그램이 탑재됐다.

체험을 원하는 신규 고객은 코웨이

닷컴, 콜센터, 코웨이 매장, 코웨이 판매인(코디, 홈케어닥터 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안마 제품은 직접 경험해보고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 마음껏 사용해보고 부담없이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홈 체험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이번 체험 기회를 통해 비렉스 안마베드와 척추베드만의 혁신적인 지압·주무름·두드림 기능과 맞춤형 마사지 시스템으로 집에서 완벽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간편 사골육수, 나트륨 ‘범벅’... 제품간 최대 13배 차이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 시험·평가 1일 섭취기준치 최대 112.4% 제품도 필수아미노산 함량 최대 4.6배 차이

간편 사골육수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고 제품 간 차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19일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곰곰 사골곰탕, 노브랜드 사골육수, 비비고 사골곰탕, 양반진국 사골곰탕, 오투기 옛날 사골곰탕, 요리하다 사골육수, 청정원 사골곰탕,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 홈플러스 시그니처 한우사골육수, 황성축협한우 사골곰탕(제품명 가나다순)이다.

시험에서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 제품간 최대 13.3배 차이가 있었고, 제품 1개를 전부 섭취할 경우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최대 112.4%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양반진국 사골곰탕(동원F&B)이 238.29mg(1일 영양성분 기준치 11.9%)으로 가장 높았고, 요리하다 사골육수(롯데쇼핑)가 17.89mg(기준치의 0.9%)으로 가장 낮았다.

제품 1개당 나트륨 함량의 경우,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풀무원식품)이 2248mg(기준치의 112.4%)로 가장 높았고, 요리하다 사골육수(롯데쇼핑)가 89.45mg(기준치의 4.5%)으로 가장 낮았다.

곰곰 사골곰탕(씨피엘비), 비비고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10개 제품 모두 미생물과 식품첨가물, 항생제 등은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돼 안전성은 문제가 없지만, 나트륨 과다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사골곰탕(씨제이제일제당), 양반진국 사골곰탕(동원F&B), 오투기 옛날 사골곰탕(오투기) 등 4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섭취할 경우 섭취량 조절이나 시금치나 미나리 등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함유된 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제품 간 최대 4.6배 차이가 있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한우사골육수(홈플러스)가 1928.80mg으로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높았고, 양반진국 사골곰탕(동원F&B)이 416.10mg으로 가장 낮

가격은 내용량 100g 당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최대 3.01배 차이가 났다. 비비고 사골곰탕(씨제이제일제당)이 19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황성축협한우 사골곰탕(황성축협육가공장)이 583.3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밖에 시험 대상 전체 제품은 즉석조리식품, 식육추출가공품 등 시험 대상 제품 관련 식품유형에 대한 미생물 시험결과,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소브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시험에서도 전 제품에서 미검출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제품마다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특별방역 등으로 소·돼지고기 물가 잡기

농식품부, 출산률 전년동월비 1.1%↑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으로 안정세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가축전염병 최소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축산물 가격이 올해 3월 기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축산물 가격 안정 추세는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해 겨울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

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올해는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살처분(361만 수)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위험시·군별(68개) 전략지도를 마련하여 추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림피스킨 등의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도 크게 줄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분기에만 7건 발생했으나, 올해엔 1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지난해 축산물 공급 불안 요소였던 구제역(2023년 11건)과 림피스킨(2023년 107건)도 올해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또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지원

탄소배출량 산정 지침 공동 개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식은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크)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국내외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전력수요 최저 전망... 발전력 감축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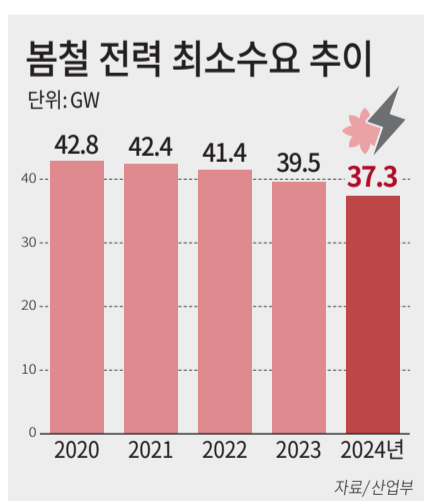
정부, 화력·원자력·태양광 등 제어 산업부,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 6월 2일까지 전력수요 감소 대책 기간

올 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가 예상되자, 정부가 전력수급 대응에 나선다. 전기 공급이 수요를 넘치면 화력, 원자력, 태양광 등 모든 전원 발전소 출력 제어에 나설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4월 셋째 주 전력시장 내 최저 수요가 37.3기가와트(G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년보다 1주일 확대된 3월 23일~6월 2일까지 72일간을 전력수요 감소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올해 봄 최저 전력수요는 지난 겨울 최대 수요인 91.6GW의 약 40% 수준으로, 연중 최대·최저 수요 격차는 54GW에 달한다. 원전 1기 발전력이 1GW 수준으로 보면, 원전 54기 발전력에 해



당하는 수준이다.

그간 전력수급 대책은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동·하계 전력 부족 대응 중심이었으나,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라 봄·가을 전력 과잉 대응이 현안으로 대두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봄·가을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력 차이가 큰 태양광 설비의 경우 2013년 1.0GW에서 2023년 28.9GW로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은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

게 변동하며,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 전기공급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전력 수요가 연중 최저인 봄철 태양광 이용률은 최고로 높아지면서 전력계통 운영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다.

우선 발전소 전력 공급을 줄이고 수요는 늘린다. 신고리 1호기, 한빛 1·4호기, 월성 4호기 등 원전 4기 정기 점검을 봄 전력 대책 기간에 맞추고, 석탄 발전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등 전력 공급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할 경우, 모든 전력 전원 발전소 출력 제어를 검토·시행기로 했다. 출력 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인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먼저 출력제어하고, 그래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원전과 연료전지,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데뷔 30주년 기념

# 나윤선 Elles 콘서트

**DATE:** 2024.04.17 (WED) 19:30

**VENUE:** 롯데콘서트홀

**TICKET:** LOTTE CONCERT HALL **yes24**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  
문의 070-8671-8103



**Alive!** **얼라이브! 맥스 바이탈**

나윤선 "Elles" 콘서트 관람 고객 모든 분들께  
고급 액상 멀티비타민 얼라이브 맥스바이탈을 드립니다  
[7개입 선물세트]



# “철도노선 총 42개·645km 확충 경기도·국민 삶 개선 대전환점”

##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발표

김동연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과제” KTX, 능곡역~파주 문산까지 운행 SRT, 수서~삼성·의정부까지 연장 용인~이천 반도체선 신설 추가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예고하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지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이 단순히 노선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을 포함하고 있다. 총 연장 길이 645km에 40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KTX는 정차역인 고양 행신차량기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지에서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하여 파주 문산까지 운행, SRT는 GTX-A 선로를 이용해 수서에서 삼성역까지,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 의정부에서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재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과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반도체선 신설, 반도체선을 서쪽으로 연장하여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신천신림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광역철도 10개 노선을 선정,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서부선 경기남부 연장 등 6개 노선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하여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하고자 한다. 동백신봉선, 판교오포선, 덕정옥정선 등 주민 생활권 내 철도를 확대하는 12개 노선을 선정하여 이동이 편안해진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하고자 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가 교통 문제이고 철도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다.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metroseoul.co.kr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고인의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해야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서 교원 보호 교권보호촉,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관할 교육감이 7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 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교원과 학생의 분리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등이 주요 사항이다.

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는 학교 단위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10~50명 내로 구성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보고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또한,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원보호 공제사업의 위탁 기관과 업무 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원보호공제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일종의 공적 보험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라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 부산시, 맞춤형 농식품 정책에 122억 투입

## 산모·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친환경 농산물 구매액 80%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부산시는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총 122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식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산부와 태아 건강 증진을 위해 2023년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 701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 소포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1인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 금액의 80%(38만 4000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제철 과일을 1인당 120g씩 연 22~26회 공급한다. 성장기 학생들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학교 유유급식 사업은 더 확대해 추진된다. 시비 투입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3자녀 이상 가구와 소규모 학교 학생 3만 3000여 명에게 유유 급식을 지속 지원한다. 또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학과 협의를 마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정사 목요장터를 비롯한 구·군 직거래 장

터 4곳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전남 해남·완도에서 물량 유치 활동을 했으며, 엄궁농산물도매시장도 법인, 공판장과 합동으로 산지개척단을 구성해 사과, 양파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맞춤형 농식품 정책 추진으로 임산부, 초등학생, 대학생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서 지속 추진할 것이며, 부산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서울시 “사과·대과, 시중比 저렴하게 공급”

농수산식품공, 롯데마트 등과 협력 가격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 주요 마트와 슈퍼에서 사과와 대과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도매시장법인4개사(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대야청과), 롯데마트와 협력해 유통·판매 마진을 최소화한 사과 7.5t과 대과 17t을 공급한다. 사과는 3월 첫째 주 평균 소매가격보다 66% 싸게 공급하고 대과도 24%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격 상승 폭이 큰 품목 가운데 채소류인 대과와 과실류인 사과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사과는 생육기 냉해와 우박 피해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30% 감소했고, 대과는 여름철 생육기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13%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공급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다. 사과는 서울 시내 롯데마트(14곳)에서 2.5kg 1박스당 9990원에, 대과는 롯데마트(14곳)와 롯데슈퍼



행사 사진. (서울시) 84곳)에서 1kg에 2950원에 판매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중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을 선정해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글로벌 공동연구 대학 6곳에 年 50억 지원 (5년간)

교육부 ‘지-램프 사업추진계획’ 올해 6곳 추가... 총 14곳 지원

교육부가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대학 6곳을 새롭게 선정해 5년간 연 평균 약 5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램프(G-LAMP)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램프(LAMP)사업은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구축하고 전공·학과 간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8개교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기존 ‘램프’였던 사업명을 ‘지-램프’로 변경하고, 기존 사업보다

사업 운영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6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총 14개 대학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선정 대학 가운데 4곳은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 평가단은 사업단 구성·운영계획, 학내 연구소 관리 및 지원계획, 중점테마 연구소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이현진 기자



# 임원진 선임하고 사업목적 추가... 성장동력 마련 '구슬땀'

## 유통·식품업계 주총시즌 돌입

3월 정기주주총회(주총)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유통·식품업계 주총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사업 추가와 임원진 선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유통업계, 경영진 신규선임 등 경영환경 안정에 초점

우선 가장 먼저 주총을 시작하는 신세계는 박주형 신세계 부사장, 허병훈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부사장을 신규 선임한다. 또 최난설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같은 날 BGF도 이사진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이번 BGF리테일 정기주총에서 홍석조 BGF그룹 회장 장남인 홍정국 BGF 대표이사 겸 BGF리테일 부회장이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될 전망이다.

이마트는 한재양 이마트 대표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겸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 전상진 이마트 지원본부장 등을 각각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제54기 정기 주총에서 김사무엘상현·정준호·장호주 사내이사, 심수옥·조상철·한재연 사외이사 등의 선임 안건을 올린다.

이달 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전무가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



현대백화점 서울 전경 /현대백화점



오리온 사옥 /오리온

신세계·BGF·이마트·롯데쇼핑 등 사내·사외이사 신규선임 안건 상정

현대백, 정지선 회장 재선임 하기로 오리온, 레고캠 인수 후 투자 확대

롯데칠성·롯데웰푸드·오뚜기 등 경쟁력 강화 일환 사업목적 추가

새로 선임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 등 임원에 처음 올랐다.

현대백화점은 사내이사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재선임한다. 또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 및 민왕일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을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로는 윤석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신규 선임하고 권영옥 숙명여대 경영학부장, 박주영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현대홈쇼핑은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윤영식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사외이사에 국세청 출신 김형환 대원세무법인 회장, 최자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식품업계, 사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식품업계는 '사업 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칠성음료는 20일 주총을 열고 '식품용 액화탄산가스 제조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다룬다. 탄산음료나 맥주 등에 들어가는 탄산을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안정유사 등에서 식품용 액화탄산가스를 전량 구입해 왔지만, 앞으로 주정 발효 시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포집하고 정제해 가공한 후 음료와 주류 생산에

다시 사용할 계획이다. 자체 탄산가스 제조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ESG 경영 실천과도 맞물린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오리온은 21일 용산구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최근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레고캠)을 인수하며 바이오 사업 투자 확대를 공고히 한 오리온은 사외이사 구성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로, 이육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롯데웰푸드는 같은날 열리는 주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성욱 롯데웰푸드 재무전략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사업목적에 '연구개발업 및 연구용업제공업'을 추가한다.

대상은 오는 22일 사업 확장을 위해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통신판매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단순 온라인몰 운영을 넘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오픈마켓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뚜기는 26일 주총을 열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현재 자체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의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설비를 얹어 이익을 거두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올해 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과 '특수의료용도 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추가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하림지주는 오는 28일 주총에서 사업 목적을 대거 추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 제공사업' '농·수·축·임산물 위수탁 판매 및 중개업' '농·수·축·임산물 대리점업' '국내외 프랜차이즈사업 및 체인점업' '프랜차이즈 및 체인점 관련 서비스업' 등 총 6개로 향후 사업 범위 확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관 변경에 나선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CJ제일제당 '헬스&웰니스' 혁신 K-푸드, 세계에 알려

## 美 자연식품 박람회 NPEW 참가 발효기술&친환경 원재료 부스 운영 김치·고추장·냉동김밥 등 선보여

CJ제일제당이 세계 최대규모 자연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헬스&웰니스' 경쟁력을 갖춘 K-푸드 혁신 제품을 전 세계에 알렸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2일부터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2024 내추럴 프로덕트 엑스포 웨스트(NPEW)'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42회째를 맞는 NPEW는 '헬스&웰니스' 트렌드를 이끄는 최신 식품, 건강식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3000여 업체와 약 6만명의 관람

객이 참여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박람회에서 '발효 기술 & 친환경 원재료' 테마의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비비고 제품을 소개하며 체험,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CJ만의 차별화된 발효기술이 적용된 K-푸드의 원조 격인 김치와 K-소스(고추장, K-BBQ소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친환경·건강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해조류(김, 미역 등)를 활용한 김스낵, 냉동김밥, 씨위드 소스 등을 선보였다.

특히 해외 출시를 앞둔 새로운 형태의 씨위드 소스 3종(페스토, 볶음 요리용 소스, 핫소스)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제품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한 원료인 해조류를 자연 발효시켜 만

든 것으로, 비비고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한국적인 풍미를 담은 K-소스 브랜드 '서울폴리'도 새롭게 소개했다. '서울폴리'는 한국 전통 장 원료와 발효 공법을 사용해 한식 고유의 풍미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B2B 전문 소스 브랜드다. 감칠맛, 매운맛, 깊은 풍미 등 K-Flavor를 손쉽게 요리에 접목할 수 있어 한식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천연 재료를 활용해 만든 혁신제품으로 주목 받는 건강주스 전문 회사 툴루아와 함께 협업해 출시한 기능성 음료도 소개했다. 이

제품은 특히 받은 CJ김치유산균(CJLP55)과 한국산 고춧가루를 활용, CJ만의 독보적인 발효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건강 음료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만들어 '올해의 혁신 제품' 최종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다.

CJ제일제당 부스에는 미국 주요 리테일 바이어, 전문 판매/유통업자, 일반 소비자 등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온 수천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박람회가 미국 시장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주요 유통채널에 CJ제일제당의 글로벌 혁신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 정관장 '랩 1899' 레드 진생 콜라겐크림 등 화장품 신제품 3종 출시

정관장은 고기능 비건 뷰티 브랜드 '랩 1899'가 신제품 '레드 진생 펩타이드 세럼', '레드 진생 콜라겐 크림', '레드 진생 히알루론산 크림' 3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KGC인삼공사의 노하우로 완성한 레드진생 비건 뷰티 테크놀로지 브랜드 랩 1899는 세계적인 비건 인증기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획득한 저자극 화장품 브랜드다. 지난 2월 미국서 '레드 진생 펩타이드 세럼'을 먼저 출시한 랩 1899는 목표 금액 대비 4배가 넘는 펀딩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랩 1899는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5종을 특허 받은 추출법으로 진하게 담아낸 진세닌베리어를 통해 피부에 건강한 힘을 선사한다.

'레드 진생 펩타이드 세럼'은 홍삼 유래 식물성 단백질을 특허 받은 공법으로 추출한 펩타이드를 함유해 피부에 탄탄한 힘을 부여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레드 진생 콜라겐 크림'은 홍삼에서 유래한 식물성 비건 콜라겐이 함유되어 깊은 피부 탄력과 걸터턱 모두 치밀하게 차오르는 멀티 탄력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레드 진생 히알루론산 크림'은 홍삼과 히알루론산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한 보습 소재를 통해 피부 수분 방어벽을 촘촘하게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랩 1899의 신제품 3종은 정관장 공식몰과 네이버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하이트진로, LA다저스와 '13년 인연'... 스폰서십 3년 연장

## 美 LA다저스 구장에 LED광고 설치 '코리안 나잇' 행사 등 후원활동 진행

하이트진로가 '진로(JINRO)'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LA다저스와의 스폰서십 계약을 3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세계 메이저리그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진로를 알리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아시아 주류업계 최초

로 2012년부터 LA다저스와 스폰서십을 체결해 다양한 프로모션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13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LA다저스 파트너사로서 로고 사용권은 물론 구장 LED 광고 설치, 시음 행사 진행과 구단 공식 매거진 '인사이드'를 통한 제품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경기장 내에서 상시 노출이 가능한 광고판을 관중석에 추가로 설치해 진로

브랜드 노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저스 구장 대표 행사인 '코리안 나잇'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 활동도 진행할 예정으로 현지 야구팬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구장 내 단독 판매 부스인 '하이트진로 바'와 11개 매점에서는 과일 소주 4종과 테라 캔맥주, 그리고 '진로 소주 쏘 블루' 칵테일을 판매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가 신규 설치한 광고판. /하이트진로

# 83조 시장 '더마 화장품' 정조준 뷰티업계, 글로벌 공략 개발 러시

국내 뷰티업계가 고물가, 원부자재 부담 등 악재 속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더마 화장품'에 집중하고 있다.

더마 화장품은 피부 건강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의미하며 일반 화장품과 달리 국가, 문화, 인종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글로벌 진출 시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19일 한국코스메슈티컬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더마코스메틱 시장규모는 2017년 5000억원에서 2020년 1조 2000억원 규모로 불과 3년여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부 관리에 대한 니즈가 커졌고, 환경·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어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인더스트리리서치는 2022년 글로벌 더마 화장품 시장 규모가 약 83조5338억원으로 집계했다. 오는 2028년에는 126조7198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뷰티업계는 더마 화장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국내 뷰티업계의 양대산맥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관련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다.

먼저, LG생활건강은 자사가 보유한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와 '피지오겔'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CNP 차앤박 화장품'을 인수하고 더마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미 매각 전부터 소비자 사이에서 CNP는 피부 전문가의 노하우를 응집한 탄탄한 기술력의 제품으로 소개되어 왔다.

해외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2020년 1월 일본에 뛰어들어 1만3000여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 데 이어 지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가 차세대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CNP' 해외서 입소문 1923억 투입, 피지오겔 사업권 매입**

**아모레퍼시픽 에스트라·코스알엑스 베트남·북미·유럽 등 140여국 진출**

**동아제약 '파티온' 론칭 후시딘 성분 '후시드크림' 출시**

난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 쿠팡, 라쿤텐에 진출했다.

또 다른 브랜드로는 피지오겔이 있다. LG생건은 2020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피지오겔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을 1923억 원에 사들여 라인업을 추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에스트라'와 '코스알엑스'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에스트라 주력 제품 '아토페리어365 크림'은 출시 5년 만에 단일 판매 누적 300만개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올해 베트남 시장까지 사업 영토를 넓혔다. 오는 상반기에는 태국 시

장을 정조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더마 화장품 브랜드 '코스알엑스' 지분을 추가 확보해 자회사로 포함시켰다. 코스알엑스는 민감 피부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로 2013년 설립됐다. 북미, 동남아, 유럽, 일본 등 140여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로 해외 매출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코스알엑스와의 다양한 협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선다는 심산이다.

제약업계도 더마 화장품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9년 여드름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의 주요 성분을 담은 '파티온'을 론칭했으며, 동화약품은 지난해 10월 후시딘 성분 후시딴을 함유한 '후시드크림'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표 뷰티 기업이 중국·일본·북미 등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약업계도 더마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더마 화장품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성인 70% 이상, 본인 체질량지수 모른다

노보 노디스크, BMI 인식 조사 26% 비만, 20%는 비만 전단계 35% "국가검진서 BMI 알게돼"

대한민국 성인의 70% 이상은 비만 관리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보 노디스크가 세계비만의 날(3월 4일)을 맞아 실시한 비만 및 BMI 인식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비만학회가 감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중 26.3%는 비만, 20.2% (203명)는 비만 전단계로, 전체 응답자의 46.4%가 비만 또는 비만 전단계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00명 중 본인의 BMI를 모르는 사람은 10명 중 7명 이상 (70.5%, 705명)이었다. 실제, BMI 25(kg/m<sup>2</sup>) 이상으로 '비만'인 사람이 자신의 BMI를 모르고 있는 비율도 70.7% (263명 중 185명)에 달했다.

BMI는 자신의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sup>2</sup>)으로 나눈 값으로, 대한비만학회는 BMI 23~24.9(kg/m<sup>2</sup>)를 '비만 전단

계'로, BMI 25(kg/m<sup>2</sup>)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한다.

BMI는 비만과 건강 관리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본인의 BMI를 아는 사람은 10명 중 3명 이하(29.5%, 295명)에 그쳤다. 응답자가 본인의 BMI를 알게 된 경로는 국가건강검진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295명 중 약 103명),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해당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50대(46.3%)와 60대(47.7%)에서 국가건강검진으로 본인의 BMI를 인지한 비율이 높았다.

저조한 BMI 인지율과 대조적으로,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은 대다수를 차지했다(88%).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은 성별, 연령대, BMI 인지여부 등과 상관 없이 높았으나, BMI 비인지자보다 인지자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비율(90.5%)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비만으로 인한 동반 질환이 심각하다는 인식도 강했다. 특히 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세경 기자



현대홈쇼핑 2024년 SS 대표 상품. /현대홈쇼핑

## 현대홈쇼핑 '미니멀룩' 트렌드 라인업 확대

SS시즌 맞아 신규아이템 대거 출시

현대홈쇼핑이 봄·여름(SS) 시즌을 맞아 패션 신규 아이템을 대거 선보인다. 최근 화려함보다 단순하고 절제된 패션 스타일을 가리키는 '미니멀룩'이 떠오르고 있어, 트렌드에 맞는 단독 라이선스 브랜드를 늘리고 기존 브랜드도 아이템 라인업을 확대한다.

현대홈쇼핑은 신규 단독 라이선스 브랜드 '시슬리'와 '프리마클라세' 등을 포함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SS 패션 판매 방송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올해 SS 패션은 미니멀하면서 캐주얼한 디자인의 의류 구매 수요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작년부터 발빠르게 라인업 준비에 들어가 단독 기획 신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우선, 현대홈쇼핑 패션 특화 프로그램 '서아랑의 쇼핑라이브(아쇼라)'를 통해 20일 오전 8시 15분부터 '시슬리' 론칭 방송이 진행된다. 이날 방송에선 현대홈쇼핑이 '시슬리'와 협업해 단독으로 기획한 가디건 세트, 롱사파리 점퍼 등 신상품 9종을 소개한다. '시슬리'는 모던한 분위기와 캐주얼한 디자인이 가미된 세련된 스타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어 다음달 5일 오전 9시 25분에 시작하는 '프리마클라세' 론칭 방송에서는 린넨 자켓, 팬츠, 직수입 핸드백 등을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 삼성, 美 브릭바이오 투자... ADC 등 개발

(항체약물 접합체)

생명과학 신기술·사업 개발 일환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통해 투자 펀드 조성이후 다섯번째 투자 사례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중인 미국 브릭바이오에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펀드가 조성된 이후 다섯 번째 투자 사례다.

이번 투자를 통해 삼성은 바이오 신사업 기회 탐색은 물론, 브릭바이오의 독자적인 인공 아미노산 기반 접합 기술을 활용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등 다양한 분야의 치료제 개발 및 생산 관련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브릭바이오는 변형 운반RNA(tRNA)를 활용해 인공 아미노산을 단백질의 특정 위치에 결합시킬 수 있

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이러한 인공 아미노산은 항체 구조 변경을 통해 특정 위치의 아미노산을 대체해 ADC 링커에 접합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굴한 다양한 변형 tRNA 들을 활용해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돼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국생명과학, 인벤테라 조영제 신약 독점

독점 판매권 계약... 수출 권리 확보

동국생명과학은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 신약개발 스타트업인 인벤테라와 조영제 신약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체결된 이번 계약을 통해 동국생명과학은 인벤테라가 개발하고

있는 MRI 조영제 신약의 생산 및 국내 마케팅·영업·유통의 독점 판매권 확보와 해외 수출의 권리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임상단계에 있는 인벤테라의 근골격계 조영제 NEMO-103과 림프혈관계 조영제 INV-001은 물론, 향후 개발될 MRI 조영제에 대한 판매 우선권까지 확보했다. /이세경 기자



동국생명과학 박재원 대표이사(왼쪽)와 인벤테라 신태현 대표이사가 지난 13일 조영제 신약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CJ제일제당, 밀가루 3종 가격 내린다

물가안정 기조 동참... 최대 10% ↓

CJ제일제당은 오는 4월 1일부터 중력 밀가루 1kg, 2.5kg 제품과 부침용 밀가루 3kg 등 총 3종의 일반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인하율은 제품별로 3.2~최대 10% 수준이며, 평균 인하율은 6.6%다.

부침용 밀가루와 중력밀가루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체 B2C 판매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측은 "최근 국제 원곡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DATA IS FREE!

매일 2시간

데이터 무제한

데이터를 다 써버린 너, 매일매일 무료 쿠폰을 쟁!



내가 만드는 디지털 통신 플랫폼

[프로모션 유의사항 안내]

- 속도와 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타임 부스터 1시간 권을 일 2매 지급해요.
- 1GB~24GB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2/1~3/31 가입 및 개통한 고객에게 12개월 간 제공해요.
- 다음 정기결제일까지 최대 60매 사용할 수 있어요.
- 오픈 프로모션 및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소진 후 사용 가능해요.
- 0원 결제 후 타임 부스터가 바로 시작돼요.

Uget

Uget



# 어느 범죄자의 외출



김준형의  
청명과니

정신의학에서 인격이란 '개인을 특정 짓는 감정적, 행동적 경향'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인격의 문제가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 '인격장애'로 진단한다. 대표적인 인격장애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반사회적 인격장애'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들은 겉보기에 똑똑하고, 말도 잘해서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끼치는 해악을 잘 인식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치료가 무척 어렵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원인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우선 어린

시절 번덕스럽고 충동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되기 쉽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콜중독 아버지를 가진 경우, 실제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되기 쉽다는 결과를 보여서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뇌의 세로토닌 전달 기능에 문제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치료는 특수한 치료시설에 장기간 입원시킨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교도소라는 환경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가 범망을 빠져나가게 해 주면 상황은 악화된다.

최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서 기소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두순의 삶을 살펴보자. 조두순의 아버지는 가정 폭력이 심한 알콜 중독자였고, 조두순이 10세때 사망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으로 중퇴하였으며, 18세

때 자전거 절도를 시작으로 폭행, 협박, 성폭행 등의 범죄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다.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두순은 고작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진다. 사람을 때려죽이고 징역 2년이란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면, 2008년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조두순은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성기와 항문의 80%를 손상시켰다. 이런 천인공도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을 검거한 형사에게 '교도소에서 몸을 만들 테니, 나와서 보자.'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후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하였다.

조두순의 삶과 행동을 보면, 전형

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생각된다. 물론 우리 헌법 하에서는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도 심신미약을 핑계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받은 사건은 조두순의 반사회적 성향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그 결과는 끔찍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였겠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그때 조두순을 변론해 준 변호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는 20대 아가씨가 되어 있을 피해자 나영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법적인 관점과 의학적인 관점 중 어떤 것이 더 정의롭고 옳은 결과로 이끌어줄까? 그리고 잔인하게 짓밟혀 버린 한 소녀의 삶 앞에서 가슴이 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나 하나만의 느낌일까?



NH농협은행, 청소년 금융역량 키운다

NH농협은행은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석용 NH농협은행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타이어뱅크, kt wiz 마케팅 후원

타이어뱅크는 지난 18일 수원 kt wiz 파크에서 2024시즌 kt wiz와 마케팅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순풍 타이어뱅크 그룹 홍보마케팅 본부장(왼쪽)과 강신혁 KT 스포츠 마케팅 센터장이 후원 협약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 현대차, 'MLB 서울 시리즈' 달린다... 수소전기버스 등 차량 지원

서울 시리즈 후원... 18대 차량 제공 특별 제작한 아이오닉 5 아트카 전시



고척스카이돔 앞에 정차한 현대차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메이저리그 공식 경기를 후원한다.

현대차는 고척스카이돔(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열리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이하 서울 시리즈)'를 후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이하 MLB) 경기로 17일부터 21일까지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MLB 정규 시즌 개막 2연전과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두 팀과 대결하는 스페셜 4경기 등 총 6경기로 구성됐다.

현대차는 서울 시리즈 운영차량으로 수소상용차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

대를 비롯해 아이오닉 5 3대, 아이오닉 6 3대, G80 1대, GV80 1대, 스타리아 4대 등 총 18대의 차량을 제공해 6경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가

지원하는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MLB 최초의 수소전기차 운영차량이다.

또 현대차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개막전 1,2차전 중 처음으로 홈런을 친 선수에게 아이오닉 5를 제공하는 이벤트 'The first IONIQ 홈런'을 진행한다. 이어 현대차는 서울 시리즈 기간 동안 고척스카이돔 야외 공간에 서울 시리즈를 위해 특별 제작한 아이오닉 5 아트카를 전시한다.

아이오닉 5 아트카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로고와 상징색을 활용해 만들어져 경기장을 찾은 고객이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 업사이클링 인형 제작·기부

유한양행은 본사, 연구소, 공장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단과 솜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인형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완성된 인형은 평소 연계 봉사활동을 해오던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기부했다. /유한양행

## 이봉은 교수, HUG '제일 학술상' 수상

(부산대학교병원)



코박터학회의 연구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제일약품에서 후원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봉은 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사진)가 지난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2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국제학술대회(HUG 2024)에서 제일 학술상을 수상했다.

제일 학술상은 대한상부위장관·헬리

## 한국타이어, CDP '리더십 A-' 등급 획득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양춘승 CDP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 김종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HR부부장,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2023 CDP 워터 코리아 어워즈'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선택소비재 부문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 한국위원회 주관 기후변화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2023 CDP 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선택소비재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CDP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글로벌 2만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한국타이어는 리더십(A-) 등급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이번 시상식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하며 글로벌 최상위 ESG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과 친환경 연구 및 개발 등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한국타이어는 이번 수상 이전에도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5회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CDP '서플라이어 인게이지먼트 리

더 보드'에 편입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원료 공급부터 제조, 운송, 사용, 폐기, 재사용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탄소 절감을 비롯하여 타이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롯데정밀화학 '올해의 광고상' 최우수상

롯데정밀화학의 바이럴 영상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롯데정밀화학은 자사 요소수 브랜드 유록스(EUROX)의 바이럴 영상 '가장, 보통의 트럭' 편이 제31회 '올해의 광고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록스 영상은 화물 기사의 딸이 화물차에서 생활하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댓글을 광고에 남긴 것이 유록스 담당자의 눈에 띄어 영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트럭 내부를 리뉴얼 해 준 서프라이즈 영상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받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 유공자 포상 접수

국내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한 전기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정부가 포상하는 전기계 유공자 포상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4월 19일까지 2024년도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전기사업,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 전기공사 및 용역업체, 전기안전 및 감리업체 등 전기산업계 전 분야에서 공헌한 자(단체 및 기관 포함)이다. /차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20일(수)  
음력 : 2월 11일

수도권 날씨  
0 ~ 9 °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2/9, 동두천 -2/10, 가평 -2/9, 파주 -2/9, 서울 0/9, 양평 0/10, 인천 2/8, 수원 2/8, 용인 2/8, 평택 -1/9

백령도 3/6

해돋이 / 06:36 | 해질 / 18:4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균형있는 국토 발전 SH가 이어갑니다

이주 희망 서울시민과 서울 입주 희망자  
모두를 위한 지방상생형 순환주택 '골드시티'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 균형 발전과 함께  
주거 행복의 꿈을 이어드립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주택시장 안정화

**지방 인구 유입 및 활성화**

- 고품질주택 • 여가 문화 레저
- 일자리 연계 • 광역 교통망

## 골드 시티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 (은퇴자,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 (병원, 문화 여가 등) 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백년주택과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을 조성해 이주 지원 하는 서울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

### 골드시티 기대효과

**서울**  
이주자 보유 기존주택의 청년·신혼부부 재공급을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방**  
고품질주택, 여가·문화·레저, 일자리 연계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골드시티 이주자를 위한 맞춤 혜택

**노후자금 마련**  
서울주택 유동화 (주택연금 등) 및 임대를 통한 이주자 노후자금 마련

**경제활동 제공**  
다양한 소일거리 제공을 통해 일상에 활력 부여

**지역정착 지원**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융화 도움





송인원.



송인원의 비각. 비석 뒷면은 비문이 갈려나가 현재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는지 알 수 없다.



/김현정 기자 송인원 전경.

# 조선의 마지막 국모와 고종의 손자, 숨결 깃들다

## 되살아나는 서울

### 서울 영취원·송인원

서울 동대문구에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후궁인 순헌황귀비 엄씨가 잡든 '영취원'과 영친왕의 첫째 아들인 이진 원손이 묻힌 '송인원'이 자리해 있다. 영취원과 송인원의 묘역 규모는 5만5015㎡이며, 지난 1991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당초 이곳에는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 민씨의 능인 '홍릉'이 위치해 있었다. 명성황후의 묘는 1919년 고종이 승하한 뒤 경기도 양주군 미곡면 금곡리(현 남양주시 금곡동)로 옮겨졌고, 영취원과 송인원의 주소명(동대문구 홍릉로90)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 ◆ 생후 8개월 만에 숨을 거둔 비운의 왕세손

지난 17일 오후 사적 제361호인 영취원과 송인원을 방문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하차해 2번 출구로 나와 국립산림과학원 방향으로 약 1km(도보 15분 소요)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매표소에서 1000원을 주고 표를 구매한 뒤 입장해 송인원으로 향했다. 송인원은 의민황태자(영친왕)와 의민황태자비 이씨(방자)의 첫째 아들인 이진의 무덤이다. 이진은 1921년 8월 18일 일본에서 태어났다. 순종은 '어떤 운명이나 역경 속에서도 밝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원손에게 '진(晉)'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1922년 4월 부모와 귀국한 이진은 일본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인 5월 10일 밤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순종 황제는 생후 8개월 만에 숨진 이진의 죽음을 슬퍼하며 후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다. 조선시대에는 어린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지 않는 풍습이 있었는데, 순종의 배려로 1922년 5월 17일 장례식을 거행했다.

송인원 역시 순종 황제의 명으로 특별히 원으로 조성됐다. 원(園)은 왕의 사친과 왕세자, 왕세자빈, 황태자, 황태자비 등의 무덤을 일컫는 말이다. 송인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붉은 기둥



순헌황귀비 엄씨를 모신 '영취원'의 재실. 선대 봉사를 위해 제사 전에 모여 목욕재계하고 준비하는 의례용 건물이다. 실내화를 신고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송인원, 영친왕 아들 '이진' 무덤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홍살문 비석 뒷면 갈려 내용 알 수 없어

영취원, 순헌황귀비 엄씨 무덤 송인원과 두드러지는 규모 차이 재실엔 독서 위한 책·소반 비치

의 문이다. 홍살문 앞으로는 향로가 끈게 뻗어 있었다. 홍살문과 정자각을 잇는 향로는 제향 때 향과 축문을 들고 가는 길로 사용된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건물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정자각이다. 정전과 배위청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모양이 '丁'자를 닮아 정자각으로 불린다.

정자각 우측엔 비각이 설치됐다. 무덤 주인의 행적을 기록한 표석엔 '원손 송인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안타깝게도 비석 뒷면은 비문이 갈려 나가 과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었다.

원손의 무덤을 가운데 두고 삼면으로 담장이 둘러졌으며, 봉분 주위에는 ▲석마(말의 형상을 조각한

돌) ▲장명등(어두운 사후 세계를 밝히는 석등) ▲문석인(관복을 입고 원의 주인을 보좌하는 인물상) ▲방주석(봉분 좌·우측에 설치된 한 쌍의 기둥) ▲훈유석(훈령이 노니는 곳) ▲석호(원을 수호하기 위해 봉분 주위에 배치하는 돌로 만든 호랑이) 등이 세워졌다.

#### ◆ 조선의 마지막 국모 순헌황귀비 모신 '영취원'

송인원을 둘러본 뒤 어정(임금에게 올릴 물을 끄는 우물)을 지나 영취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덤의 주인은 순헌황귀비 엄씨다. 순헌황귀비는 광무 1년(1897)에 영친왕을 낳았고, 6년 뒤 황귀비로 책봉됐다. 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양정의숙과 진명 여학교, 숙명 여학교 설립을 지원했다.

영취원과 송인원은 비슷하면서도 달라 두 무덤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묘역의 규모다. 영취원이 송인원보다 훨씬 컸다. 송인원에는 정자각 앞으로 향로만 나 있지만, 영취원의 홍살문 뒤로는 향로와 어로가 함께 만들어졌다.

영취원과 송인원에는 홍살문, 정자각, 비각이 세워졌다. 송인원에는 영취원 원침에 둘러진 호석(둘레 돌)과 석양(무덤 앞에 세운 돌로 만든 양 모양의 조각물)이 생략됐다.

영취원 좌측에는 순헌황귀비의 재실이 마련됐다. 재실은 선대 봉사를 위해 제사 전에 모여 목욕재계하고 준비하는 의례용 건물이다.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둘러봤다. 마루 한켠을 차지한 검박한 1단짜리 나무 책꽂이에는 '왕릉 가는 길', '공릉 산림 생태 조사 연구', '우리나라 전통 무늬 나전·화각' 등의 책들이 잔뜩 꽂혀 있었다. 그 앞에는 책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소반 하나가 놓였다.

아쉽게도 볼거리는 이게 전부였다. 재실 내부는 물건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한옥의 창호에 붙은 창호지에 구멍이 나 위에 한지를 덧바른 자국이 곳곳에 보이는 것과 누군가 벽 한 귀퉁이에 매직으로 적어 놓은 '14'라는 숫자 외에는 특기할 만한 것이 없었다.

영취원과 송인원의 관람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일이라 문을 열지 않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美의회, 쟁점예산안 협상 타결...22일까지 처리해야 섣다운 면해 /사진 뉴시스  
▲푸틴, 5선 후 우크라이나 점령지 영유권 재천명...“크림반도 철도 연결”

▲이스라엘 “후전 합의 낙관적이지 않아...최소 2주 걸릴 듯”  
▲중국, 이달 사상 최대 수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예상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17년만 금리 인상 /사진 뉴시스  
▲“DJ소다 성추행 사건” AV로 만든日制작사 일파만파



유통·식품업계  
주춤시즌 맞아  
성장동력 '구슬땀'  
니



Life

뷰티업계  
더마 화장품  
정조준  
L2



# 100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년 3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저성장 지속되는 수축경제... '생존 재테크'로 대비하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글로벌 경제 인구감소로 소비·생산도 줄어들어 작아진 파이에 맞는 재테크 필요해 주식, 부동산 새로운 투자전략 공유

“우리는 낭떠러지를 피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올리비아 블랑샤르 전 IMF 이코노미스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자 소비자물가가 치솟았고, 한국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021년 8월 0.5%였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까지 올랐다. 1년8개월만에 3.0%포인트(p)가 오른 셈이다.

수많은 낭떠러지를 피하다 높은 산을 마주한 심정이 이렇을까. 전문가들은 이제 고금리, 고물가를 벗어나 수축경

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고금리·고물가로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줄어드는 파이를 차지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수축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기간 지속되는 경제사회를 말한다. 인구감소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며, 소비와 생산이 줄어들고 있으니, 작아진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유연 근무제 범위를 확대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해 파이가 작아지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유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현장이나 조선업 등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지

원해 생산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앞으로는 개개인도 수축경제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용이 줄어가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적은 파이에 생존할 수 있는 재테크가 필요하다. 이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하고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가기 위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원 소장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김 소장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글로벌 경제, 달러의 가치 하락과 세계적 저성장 국면에서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20	축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5:10	기조강연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원 소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15:10~15:50	강연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 전망과 투자전략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 본부장 : 고령화 시대, 재테크 전략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새로운 주식투자 전략을 공유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특히 박 위원은 수축경제의 주력으로 부상하는 MZ세대의

수요에 맞는 부동산 투자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은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수축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평생소득 대책을 제시한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원 소장



'경제의 정석', '경기순환 알고잡시다' 등 저서와 유튜브 채널 '김영익의 경제스쿨'로 알려진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원 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 이번 포럼에서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투자자가 올바른 시각을 가

질 수 있도록 있도록 글로벌 경제 해설에 나선다. 최근 세계 경제는 2021년 급격한 회복에 접어들었지만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선진국은 정부의 각종 부채 비용에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신흥국 기업들 역시 부채가 확대되며 성장의 둔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빠르게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40년 경력의 경제분석 전문가이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영익 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글로벌 환율 전망 ▲한국 경제 전망 등을 주제로 세계적 거시경제의 빠른 변화 속에서 투자자가 올바른 시각과 현명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적 경제 정세를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 내일희망경제연구원 소장
- 유튜브 채널 김영익의 경제스쿨 운영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올해 증시전망과 투자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올해는 통화정책 기조전환과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 주식시장

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예고되면서 지난해 부진했던 증시가 활력을 찾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증시전망'을 중심으로 ▲미국·중국 경기회복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주식투자전략'에 대해서는 ▲업종확산 준비 ▲인구구조 변화 ▲AI ▲인도시장 등의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염승환 이사는 유망종목들로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 반도체, 자동차,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을 제시한다. 기업의 성장 여력이 넘쳐나지만 거시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의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짚어 볼 예정이다.

-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온라인 주식 영영, 교육 및 홍보 담당
-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등 고정 패널
- POSCO, LG전자, 포항공대, 한양대, 국회 등 강연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부동산 시장 수축시대에 발맞춘 투자 비법을 공유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먹구름이 짙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경우 구조적 불황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서울 지역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딱 맞는 투자 전략을 귀띔할 예정이다. ▲아파트 투자 포인트 ▲부동산 시장 관련 포인트 ▲수익형 부동산 ▲꼬마빌딩 체크포인트 등 올해 주목할 만한 부동산 투자 상황을 꼭 짚어준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는 은퇴 대비 자산 설계에 관한 이야기도 쉽게 풀어줄 예정이다.

- 현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전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고령화 시대 재테크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6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장수 시대를 대비해 은퇴 후 자금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은퇴 준비 전문가로 통하는 김동엽 본부장은 포럼에서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내 연금 얼마나 되나?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하는 연금계좌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 등 고령화 시대 대비 계획에 대해 강연한다.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과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다. 최근 고물가시대를 대비해 물가상승을 고려한 은퇴 자금 인출 설계 방법 역시 설명할 예정이다.

-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교육콘텐츠 본부장(상무)
- 전 한국FP협회 이사
- 건국대 부동산 경영관리 석사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두산, 역대 3번째 시범경기 무패... '8승 1무'로 마무리 /사진 뉴시스  
▲'성폭행 혐의 MLB 퇴출' 투수 바유크, 멕시코팀과 단기 계약

▲영 매체 "손흥민, 전 세계 축구선수 12위...1위는 홀란드"  
▲메시, 햄스트링 부상...아르헨티나 3월 A매치 못 뚫다



▲축구대표팀 새 유니폼 공개...21일 태국전부터 착용 /사진 뉴시스  
▲이강인, 21일 밤 입국... '하극상 논란' 직접 사과 예정